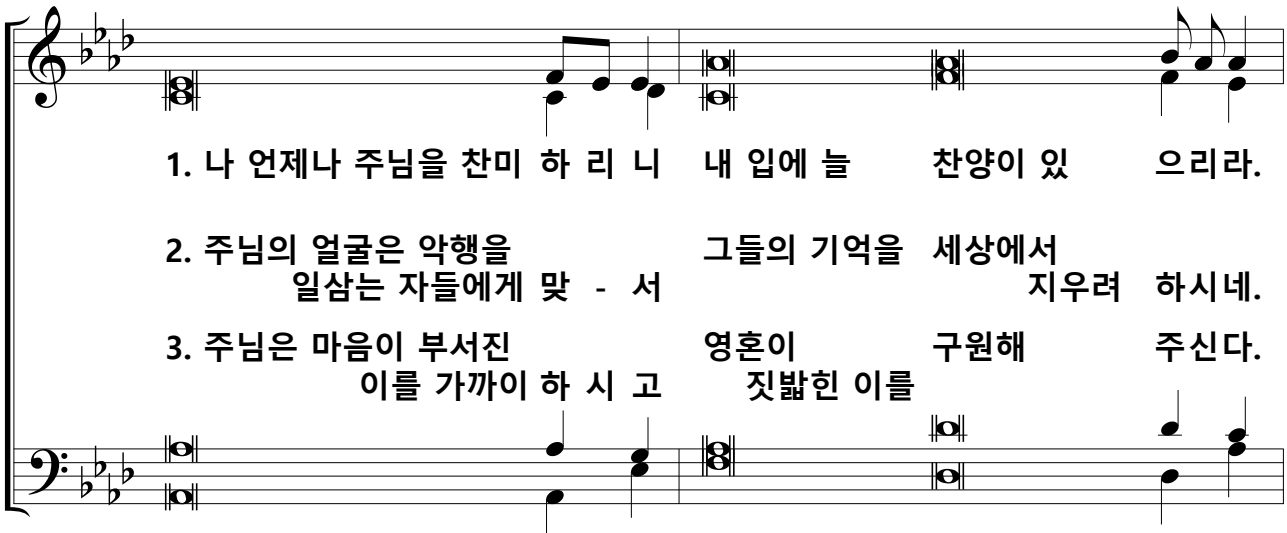


연중 제 30 주일 화답송 [다해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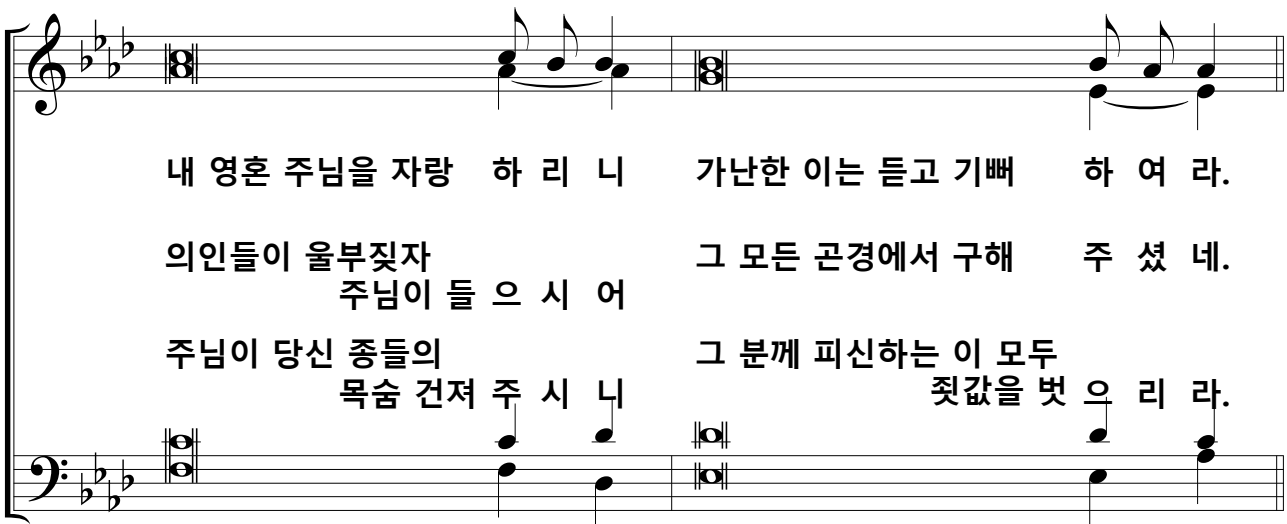
시편 34(33), 2-3. 17-18. 19와 23



(후렴)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 주 - 셧 네.



1.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 하 리 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 으리라.
 2.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일삼는 자들에게 맞 - 서 지우려 하시네.
 3.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영혼이 구원해 주신다. 이를 가까이 하 시 고 짓밟힌 이를



내 영혼 주님을 자랑 하 리 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 하 여 라.
 의인들이 울부짖자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 셧 네. 주님이 들 으 시 어
 주님이 당신 종들의 그 분께 피신하는 이 모두 목숨 건져 주 시 니 짓밟을 벗 으 리 라.